

자율주행차 운행 인프라 구축

익산시, 이달부터 역 인근 5개 공영주차장 대상 스마트 주차장 조성

익산시가 익산역 일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자구에 자율주행차 운행에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증·사업화를 유도해 첨단 모빌리티 활성화 토대 마련에 나선다.

6일 익산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자구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익산의 경우 2022년 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1.5km가 지정된 바 있다.

시는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 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지능형 교통체계 표준으로 제정·고시되지 않은 신기술 등 각종 특례를 활용해 익산역 광역 복합환승체

계와 연계한 자율주행차 실증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에서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 이를 통해 시는 5년간 국비 136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94억 원을 확보했다.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지정된 조건에서 운전자 없이 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기술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익산역 인근 도로 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셔틀을 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시는 이달부터 익산역 주변 5개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주차장 조성에 돌입한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수집한 정보를 내

비게이션이나 스마트보드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이용객들이 주차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출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 미납고지서 발송 등 행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자율주행 스마트플랫폼 구축 설계와 자율주행 셔틀차량 임차운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한다. 이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관제센터와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셔틀을 2028년까지 4년간 실증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사전신청을 받고, 자율주행 혁신기술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디어로움 밥차가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가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디어로움 찾아가는 이동밥차'

익산시, 무료 식사·복지 상담·문화 활동 진행

익산시 디어로움 밥차가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찾아가 무료 식사를 제공한다.

시는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마다 소외계층의 행복한 밥 한 끼를 책임지기 위해 디어로움 이동밥차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디어로움 밥차는 휴식기 8월을 제외 12월까지 진행된다.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는 행복나눔마켓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주민 300명에게 식사를 준비해 제공하고 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익산시 구역별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음식을 만들고 현장에서 드실 수 있도록 이동 밥차로 운영하고 있다.

3월 이동 밥차는 6일 합영을 아사발

공원에서 북부권 취약계층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이동 밥차는 NH농협 익산시지부에서 후원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다. 당일 조리한 따뜻한 한 끼 300인분을 준비하며, 나눔의 열기는 식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이동 밥차에 복지 상담과 함께 문화 활동이 더해졌다. 즐겁게 나눔이 나온 기분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디어로움 이동 밥차로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디어로움 이동 밥차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국가공모사업 중앙부처 협의 추진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 등 방문 국가공모사업 선정 필요성·법령개선 건의

군산시는 지난 5일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직접 방문하여 △나문동 일원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농촌 공간 정비사업 △양조용 국산맥아 생산 기반 조성사업 △국내 수제맥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가장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이달 공모 예정인 농촌 공간 정비사업

과 관련하여 군산시가 선정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업체(수제맥주, 위스키) 등의 가격경쟁력 및 시장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세법, 주류면허법 등 관련법령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국장 과 면담해 군산시 상습 침수피해 지역인 나문동 일원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군산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건의했다.

신원식 부시장은 "부처 예산안 편성

은 국비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로 현안사업 중 미운척이거나 부정적인 사업들의 논리개발과 대응 방안을 찾아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군산시는 '2025년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토의', '특례활용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관련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중앙부처별 2025년 예산안은 4월중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여 5월말까지 마무리 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울여름 호우 총력 대비... 산북천 제방 보강 박차'

익산시가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인해 유실된 제방을 튼튼하게 복구하는 등 수해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용안면 난포리 산북천 석동배수장 인근의 제방을 보강한다고 6일 밝혔다.

산북천 제방은 지난해 여름 폭우 당시 흐르는 물에 의해 붕괴가 생기며 지반이 파괴된 바 있다. 제방이 유실되며 인근 10개 마을 주민 600여 명이 대피했다. 시는 당시 긴급 철야 작업으로 대응해 제방 붕괴를 막아냈다.

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익산시는 '산북천 제방 유실 구간 복구'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실시계획을 마쳤으며, 지난해 12월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연약한 지반 40m 구간을 보강하고 배수봉문 4개를 철거한 뒤 재가설한다. 또 제방도로 180m 구간의 콘크리트 포장도 추진한다.

시는 산북천 뿐 아니라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방하천·소하천 등 31개소에 대해서도 우기 전까지 복구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 울여름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동문면 대조지구에 대한 자연재해 위험 개선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삼기면 연동지구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에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용안면 난포지구는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고용어가 모집

군산시는 급증하는 어촌인력의 단기·계절성 고용 안정화를 위해 수산분야에 근로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로 근로 추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및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주는 군산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군산시 수산식품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군산시는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해면양식 분야 시범사업지 선정 이후 법무부로부터 2022년 23명, 2023년 5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왔고 당초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분과 가족(4촌 이내)을 추천받아 계절근로자를 선발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한 사전 고용수요조사에서는 약 130여 명으로 고용수요가 급증하여 올해는 추가로 더 많은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어촌인력 공급 시범에 나서게 된 것이다.

먼저 고용수요 내에서 해외 지자체와의 인력 교류 협약(MOU)을 체결해 어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모집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의 배정심사 및 입국절차를 마친 후 올해 하반기 중 입국하여 기본 5개월, 연장 시에는 최대 8개월까지 김 양식업 등 수산업 현장에 투입되어 일할 예정이며, 올해부터는 근로 전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전 단체 근로 교육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고용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시적외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배달의명수,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 선정

군산시민 및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전용앱 '배달의명수'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정비구니 물가부담 경감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배달의명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농식품부 지정 품목인 국산 농축산물을 사게 되면 최대 30%(인 2만원 한도)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할인혜택은 주 단위로 초기화되므로 한 달에 4회 최대 8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할인은 사업비 1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보건소, 11~14일 '국민건강영양조사' 실시

군산시 보건소는 오는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사로, 매년 전국 192개 지역 약 4,800가구의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신체검진, 건강설문, 영양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대표 통계가 산출되어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된다.

군산시의 경우, 경암동 6동 25가구의 지역 주민이 표본으로 선정됐다. 해당 주민들은 조사기간 중 2대의 이동검진 차량에서 신체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설문조사 등을 받게 된다. 조사 후에는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여부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조사인 만큼 대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